

술 후 과민반응 정복하기 : 왜 시리고, 어떻게 해결할까?

김 현 정 /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

성공적인 레진 수복 직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'술 후 민감증(Post-operative hypersensitivity)'은 임상가와 환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임상적 딜레마이다. 본 강의는 수복 세션의 일환으로, 앞서 다룬 지각과민 의 기초 기전을 바탕으로 실제 수복 임상에서 술 후 민감증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실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.

수복 술식 중 접착 과정이 민감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. 특히 최신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가산부식(Self-etch)과 산부식 후 수세(Etch-and-rinse) 등 접착 시스템의 선택이 술 후 민감증 발생 위험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팩트 체크를 진행한다. 아울러 상아질 밀봉 테크닉(Immediate Dentin Sealing, IDS), 올바른 습윤 결합(Moist bonding) 유지, 그리고 중합 수축 응력을 최소화하는 충전 기법 등 '시리지 않은 수복'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상 프로토콜을 공유한다. 완벽한 술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해 버린 술 후 민감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. 가역적/비가역적 치수염의 감별 진단 포인트를 짚어 보고, 환자를 안심시키는 경과 관찰 (Wait & See) 요령부터 지각과민처리제의 활용, 미세 교합 조정, 그리고 재수복 및 근관치료로 넘어가야 하는 결정 기준 (Decision making) 까지 단계별 처치 전략을 다룬다.

학력 및 경력

- *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전공의
- *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전임의
- *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조교수
- * 현,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 조교수
한국접착치의학회 자재이사
대한치과보존학회 섭외실행이사